

## “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 ”

### ■ 이종윤 원로목사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교회는 밤모성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로 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다.

에베소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 교역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됨을 드러낸 교회로서 칭찬을 받았다. 악한 자들은 니콜라당을 연상시킨다. 니콜라는 언어학적으로 니콘(삼키는 자, 이기는 자)과 라오스(백성) 그리고 히브리어로 발라(삼킨다)와 암(백성) 즉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이 있다. 우상숭배와 행음으로 백성을 삼켜 망하게 하는 이단종파였다. 에베소교회가 정통 진리를 지키면서 이단 사이비의 비진리를 드러내는 수고를 했다고 인자되신 부활하신 주님의 칭찬의 말을 들었다.

에베소교회는 교리적 정통과 정행이 있어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로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 이는 형제사랑(Philia)을 버렸다는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주 예수님 사랑(agape) 즉 수직적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다.

AD53년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매일 5시에서 10시까지 요즘 시간으로 11시에서 16시까지 성경 강좌를 열었다. 점심시간을 빼고 매일 4시간씩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행 19:9-10)

1907년 평양대각성운동 당시 믿음의 선진들은 50리~70리 길을, 소에 먹을 것과 덮을 것을 싣고 걸어와 사경회에 참여했다. 평양에서 폭발된 이 회개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눈밭에서 가경에서 상량 위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통곡하며 ‘마치 지옥 뚜껑이 열린 것처럼’ 각종 죄들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이 나라 전국을 불태워 ‘평양대부흥운동 - 각성운동’이 이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교회사에서 웨일스 성령운동과 함께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한국 교회도 주님 사랑의 열도가 크게 끓여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이제 몰량주의, 기복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우리도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주님을 수직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사랑의 수평적 사랑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주님 사랑하는 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영생으로 주석하는 이들이 있으나 영생은 구원받는 성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미 주신 것이므로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세에 이기는 자 즉 회개한 자 또는 순교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을 말한다.

그 상급을 어떻게 주어 먹을 것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마치 복종의 생명이 이 세상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내세의 일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미래에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으로 받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한다.

-한국장로신문 2017년 5월 27일 발취-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사명자대회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이토록 신속히 회복시켜 주신 것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과 비전을 이루고자 하심임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50일간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우리 각자 인생에 주신 사명을 다시 되새기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009\\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009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름,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달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

## “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

### ■ 이사야 6:6-13

금년 사명자대회는 이사야 6장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모든 피조물에 고유한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명과 그 일을 위한 우리의 영적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배워야하겠습니다. 그는 긴 세월을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신앙적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나이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수난을 예고하는 등 시대를 초월한 말씀의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 1. 윗시야 왕이 죽던 해

윗시야 왕은 열정적인 여호와 신앙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스스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병환자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일은 국민들을 혼돈에 빠지게 했습니다. 대외적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이미 앗수르의 세력이 주변국들을 공포에 빠지게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번영의 시기에는 항상 사치와 향락에 빠져드는 도덕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유다 왕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위하여 누가 나서겠는지를 이사야에게 묻고 계십니다. 불합리하고 모순된 현실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충격과 상처로 영혼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파괴적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하고 현실을 외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이 현실을 바라보며 ‘누가 나서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 2. 왜 이사야인가?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의 신앙적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성찰과 회개와 애痛的 울부짖음의 시간을 갖습니다. 즉 자기 죄성의 심각함에 집중할 뿐 누구를 탓하거나 시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때 그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갈꼬?’라며 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윗시야 왕의 모습과 대비됩니다. 윗시야 왕은 교만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려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나 이사야는 성전에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만과 겸손한 회개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업적이 찬란해도 교만하면 언제나 실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계1:17에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요한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을 오늘도 주님은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 3. 희망의 선지자로

이사야 1:6에서 당시의 모습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만신창이 같은 이런 세상을 누가 고치며 새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사람들에게 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남아 있는 그릇터기입니다. 그릇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듯 언제나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봅니다. 첫째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만 있으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의 불변을 믿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현실의 절망에 도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일예배

시 간	인 도	기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김승록 장로
I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66:8-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9(1절)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5(시 47)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216(356)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 6:6-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495(271)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오후 8시 본당 2층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손달익 목사

##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 다 합 께  
성 시 ..... 시 18:1-2 ..... 인 도 자  
찬 송 ..... 37 ..... 다 합 께  
기 도 ..... 윤효민 집사  
찬 송 ..... 325(359) ..... 다 합 께  
성 경 ..... 롬 9:1-13 ..... 인 도 자  
사명자대회발대식 ..... 말 은 이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마음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 설 교 자  
\* 찬 송 ..... 495(271) ..... 다 합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합 께

##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동수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김정순6 권사 II부: 박미영3 권사  
성 경 ..... 왕상 8:54-66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김익환 목사

##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본당 2층  
설 교 ..... 손달익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소식

### ☞ 모 임

- 리브가전도회 월례회 / 9일(주일) 오후 2시30분 502호
- 8교구 연합모임 / 10일(월) 오전 10시 독성유원지역 2번 출구
- 사라전도회 야외예배 / 11일(화) 오전 10시 교회 출발(베델하우스)

### ☞ 알 림

- 101호  
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오후 2시
- 102호  
소망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 403호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중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 603호  
사랑부: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청년1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세례교육부: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유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유아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 장 례

- 故 고광호 집사(4교구 고영숙 권사의 부친, 안선광 집사의 장인) / 10월1일(토) 별세, 10월3일(월) 천국환송예배
- 故 이जे연 권사(3교구 고선옥 권사의 모친, 조경호 집사의 장모) / 10월5일(수) 별세, 10월8일(토) 발인

##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이상헌5	3-7	베드로	본인	심승희	3-7	도르가	본인
이예은2	3-7	초등부	본인	이예지5	3-7	유년부	본인
박윤호3	9-1	청년부	장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499명	374명	1,873명	408명	1,933명

## 고난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사는 고난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역사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하나 같이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극심한 고난을 극복하고 구출되는 기적을 만들어 왔다. 무슨 비결이 있었을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그대로 행한 것뿐이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의 필요는 느끼되 그것을 남에게 청탁만 하려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큰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비탄과 절망 그리고 불평이 아닌 기도하는 백성이기에 저들은 고난을 뚫고 이기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주여, 우리의 고난을 구속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씀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